

책임판단과 완벽주의

양 지 혜

박 광 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 생긴 문제 상황에서 판단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행위자의 통제가능성이 행위자에 대한 판단자의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학(원)생 123명과 직장인 45명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 Flett, 1991)를 시행하였고, 하위차원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의 점수를 조합하여 두 차원의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높거나, 두 가지 중 하나만 높거나, 두 가지 성향이 모두 낮은 것을 반영하는 완벽주의지표를 구성하였다. 책임판단은 행위자가 제 3자에게 입힌 피해 상황을 포함하는 5개의 상황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각 상황 시나리오는 다시 행위자의 행위통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뉘어 제작되었다. 각 참가자들은 행위자의 행위통제 가능성이 낮거나 높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할당되어 5개의 상황 시나리오에서 설명된 피해상황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정도를 판단하였다. 원인에 대한 책임판단의 경우, 완벽주의 성향과 통제가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해결에 대한 책임판단의 경우에는 완벽주의 성향과 통제가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판사나 배심원의 완벽주의 성향이 해결책임 (배상/보상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다차원적 완벽주의, 통제가능성, 책임판단, 민사재판, 책임귀인

[†] 교신저자 : 박광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대학교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Tel : 043-261-2595, E-mail : kwangbai@chungbuk.ac.kr

사고가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중요해질 수 있다. 특히 책임소재의 규명이 중요한 상황은 법적인 상황이다.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 혹은 양형판단을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문제를 촉발한 책임, 즉 문제 원인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배상책임을 다투는 민사재판의 원고승소 혹은 원고패소 판단은 ‘문제를 복구할 책임, 즉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원인에 대한 책임판단과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판단이 판단자의 성격, 특질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미국 등지에서 이루어진 책임판단 혹은 책임귀인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판단자의 성격이나 특질이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는 해외에서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판정이 배심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도출하는 판단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특질의 영향이 희석되거나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극히 일부의 형사재판이 국민참여재판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고, 대부분의 형사재판과 모든 민사재판의 책임판단이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의 책임판단에 판단자의 성격, 특질 등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다.

책임판단은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대인간 행동의 주된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Phares & Wilson, 1972). Piaget(1962)가 도덕적 판단의 발달을 다룬 연구에서 책임귀인이 결

과의 강도와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이후, Heider는 책임귀인에 대한 보다 확장된 분석을 제공하였다(Finham & Jaspars, 1979). Heider(1958: Finham et al., 1979에서 재인용)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력과 개인의 영향력의 상대적 기여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책임귀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 행동의 결과가 환경이나 상황적인 영향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외적 귀인이라 칭하였고, 개인적인 동기, 의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내적 귀인이라 칭하였다. 또한, Heider(1958: Hamilton & Sanders, 1981에서 재인용)는 책임판단의 다섯 가지 수준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연합 수준(association level)으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두 번째인 원인제공 수준(commission level)으로, 행위자가 그 행위의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하였어도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예측가능성 수준(foreseeability level)은 행위자가 그 행위의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어도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네 번째인 고의성 수준(intentionality level)은 완전히 의도된 행동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화 수준(justificability level)은 의도된 행동이더라도 상황적으로 타당하거나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책임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예측가능성과 정당화 수준을 살펴보면, 책임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통제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통제가능성은 행위자가 외적 압력이나 상황적 필요에 의해 불

가피하게 문제를 일으킨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높은 통제가능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문제를 일으킨 행위를 선택한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경험적으로 행위자의 의도의 정도와 사회적 역할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결정인자로 알려져 있다(Hamilton, 1978). 이는 문제를 발생시킨 대상인 행위자가 그 문제를 일으키고자 한 의도가 없었고,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책임이 경감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 연구(Rickard, 2014)에서는 행위자의 위험에 대한 지각에 따라 내외귀인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눈이 많이 내린 날 등산객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상황에서 책임을 판단하는 제 3자가 보기에 등산객이 등산하기에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 등산객에게 책임을 귀인하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판단하면 등산객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책임을 더 귀인하는 것을 발견했다.

Brickman, Rabinowitz, Karuza, Coates, Cohn과 Kidder(1982)는 책임귀인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책임귀인(원인책임귀인)과 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귀인(해결책임귀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원인책임귀인은 지나간 사건에 대해 누군가를 비난(blame)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해결책임귀인은 미래에 대한 통제(control)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책임귀인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의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Perry & Bussey, 1984: 강에스더, 2008에서 재인용).

완벽주의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도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늘 자신과 타인의 수행을 평가한다(이미화, 류진혜, 2002).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은 개인의 내적인 동기를 향상시켜 성취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부적응적인 성격 특징과 관련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 우울, 열등감, 성격장애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이미화, 류진혜, 2002; 김현정, 손정락, 2006; 설미향, 이윤희, 2011;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박지연, 양난미, 2014; Hewitt & Flett, 1993; Hewitt, Flett & Ediger, 1996; Flett, Besser & Hewitt, 2005; Sherry, Hewitt, Flett, Lee-Baggley & Hall, 2007). 이 때문에 완벽주의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완벽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초점으로 다루어졌다. Pacht(1984)은 완벽주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수행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한 기준을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지각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항상 실패한다고 생각한다(Burns, 1980: Pacht, 1984에서 재인용). 완벽주의자들은 실패 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거나 ‘해야만 한다(should)’ 진술(예,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에 얽매어 학교나 직장 등에서 부적응적인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단일차원으로 보던 이전 연구들과는 다르게, 1990년대부터 완벽주의

를 다차원적으로 보는 척도들이 개발되면서 완벽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는 완벽주의를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의 질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고, 이를 반영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제작하였다. Hewitt과 Flett(1991)은 자기(self)가 사적인 자기(private self)와 공적인 자기(public self)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완벽주의의 개인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대인간 측면도 중요하고, 이 측면이 적응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완벽주의를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는 완벽주의적 행동이 누구에게 귀인되는가에 따라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완벽주의를 행동 유형의 차이로 구분하지 않고, 완벽행동이 향하는 방향성의 차이로 구분한 것이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차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가 있다. 이는 스스로 만족할만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성향이다. 두 번째 하위차원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로, 타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포함하는 성향이다. 이 성향을 가진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타인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 적대감, 불신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자주 겪을 수 있다. 마지막 하위차원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

키고자 하는 성향으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결국 거부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적응적인 요인과 부적응적인 요인을 모두 지닌 차원으로 고려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일관되게 부정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상희, 현명호, 2012; 오유경, 김은정, 2014; 유성은, 권정혜, 1997; 정명인, 오수성, 신현균, 2005;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완벽하도록 요구되는 대상이 '자기'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신에게 완벽함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상이 각각 '자기'와 '타인'이라는 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Hewitt & Flett, 1991). Hill, Zrull과 Turlington(1997)의 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자들은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보이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남성의 경우 오만하고 사회적으로 거리가 있는 특징을, 여성의 경우 다양한 대인관계 부적응의 특징을 보였고, Hewitt 등(1993)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 스트레스보다 성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다르게,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모두 여러 생활영역 중 대인관계 영역에서 가장 완벽하고자 하였다(박현주, 1999)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모혜연(2000)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대인 스트레스와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성취 스트레스와 전체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상관이나

오지 않았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성취 스트레스가 아닌 대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는 것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역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처럼 타인으로부터 인정 욕구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모혜연, 2000).

Frost 등의 MPS(FMPS)와 Hewitt과 Flett의 MPS(HMPS)를 비교하는 연구(Frost 등, 1993)의 결과, FMPS와 HMPS의 상관이 높았다. FMPS의 총점은 HMPS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상관이 있었으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HMPS의 다른 두 하위요인보다 상관이 약하였다. FMPS의 개인적 기준요인은 HMPS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F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비난, 부모의 기대 요인은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요인과 관련이 있었다. 두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강한 상관을 보였다. 두 척도의 아홉 가지 하위요인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나왔는데, 한 요인은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비난, 부모의 기대, 행동에 대한 의심차원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부적응적 평가 염려' 요인이었다. 또 다른 요인은 개인적 기준, 조직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으로 구성된 '긍정적 성취욕구' 요인이었다. 두 요인 중 '부적응적 평가 염려' 요인이 높으면,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으로, 반면에 '긍정적 성취욕구' 요인이 높으면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을 나누어 본 연구에서 집단 간에 내적 귀인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내적 귀인을 더 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

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통제성 차원 점수가 더 높았고,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부정적 귀인양식인 안전성, 전반성 차원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제성 차원 점수는 더 낮았다(박소영, 2002). 이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부정적 사건에 대해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귀인을 하고 내적 귀인을 하며 부정적 사건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명인 등(2005)은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간에 성공 및 실패 사건 경험에서 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수행을 성공하였을 때 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보다 내적 귀인을 더 하였다. 이는 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성공 경험을 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였다고 해석함을 보여준다. 수행을 실패하였을 때는 두 완벽주의자들 간에 내외귀인, 통제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이 기능적 완벽주의자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귀인을 하였다. 이는 역기능적 완벽주의자가 성공 및 실패 경험을 하면 역기능적 귀인을 하여 기능적 완벽주의자들보다 쉽게 무력감을 느끼고, 적응의 문제를 보일 수도 있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격이 문제가 발생한 분쟁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판단을 위한 단서로 관여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완벽주의 성향은 자신이나 타인의 수행에 대한 기대 및 평가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판단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책임판단에 관여한다면 과거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보다는 미래의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판단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판단은 문제원인에 대한 책임판단과 독립

적일 수 없다. 즉,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반통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에 대한 책임판단은 원인에 대한 책임판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판단에 완벽주의 성향이 관여하는 양상이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통제가능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판단자는 판단대상자의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 판단대상자에게 높은 해결책임을 부과하고, 통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낮은 해결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27명과 충남 지역의 직장인 45명, 총 17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168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는 85명으로 50.6%였고, 여자는 83명으로 49.4%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6.29세(SD = 10.06세)로 18세부터 58세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완벽주의 척도는 Hewitt과 Flett(1991)가 개발한 것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까지 7점 척도로 평정된다. 완벽주의가 향하는 방향성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나누었고, 각 하위차원들은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이 척도를 한기연(1993), 홍혜영(1995) 등이 번안하고 김연수(1998)가 재번안한 다음, 이를 이미화(2001)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연수(1998)의 요인분석 결과에 준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들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14문항,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13문항,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8문항으로 구분하였다. 각 차원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87,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7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82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세 하위차원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제외하고,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만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에 있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제외하였다.

책임판단 시나리오

책임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에스터(2008)가 개발한 문제 상황 귀인검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문제 상황 귀인검사는 실제 일어날 법한 부정적인 문제 상황들을 10개의 상황 시나리오로 제작하고, 검사 문항들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원인에 대한 책임과 해결에 대한 책임을 외적으로 귀인하는지, 내적으로 귀인하는지에 대해 묻는다. 본 연구에서는 10가지 상황과 통제가능성의 조작 검증은 위해 4년제 대학(원)생 48

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에서는 각 상황에서 하나의 질문을 통해 통제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검증 결과 통제가능성의 고/저 조건에 따라 통제가능성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t(46) = -7.59, p < .001$). 예비연구 결과를 통해 문제 상황 귀인검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네 가지 측면에서 각색하였다: (1) 불법행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상황 시나리오 등을 제거하고 5개의 상황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2) '나'가 아닌

타인('김씨')이 판단대상이 되도록 각색하였다; (3) 각 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이 내적/외적 귀인이 아니라 원인책임 판단의 정도("문제 발생에 대해 김씨의 책임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와 해결책임 판단의 정도("김씨가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가 되도록 변경하였다; (4) 각 상황 시나리오를 판단대상의 통제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낮은 상황으로 나누어 2개씩의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상황	통제가능성	
	저	고
1	김 씨는 이삿짐을 나르다가 텔레비전을 잠깐 계단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이웃 주민이 그 텔레비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병원에 실려 갔다.	김 씨는 고장이 난 텔레비전을 세 달째 아파트 계단에 방치해 두었다. 그런데 이웃 주민이 그 텔레비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병원에 실려 갔다.
2	김 씨는 중개업자이다. 어느 날, 급히 집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수소문하여 산사태에 취약하지만 딱 하나 매물로 나온 집을 찾아내었고, 소개비 20만 원을 받고 그 집을 소개해 주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얼마 뒤, 그 집은 산사태로 무너지고 말았다.	김 씨는 중개업자이다. 어느 날, 급히 집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수소문해보니 매물로 나온 집이 많았다. 그 중 산사태에 취약한 집을 '설마' 하며 소개해 주고, 소개비 20만 원을 받았다. 결국 그 사람은 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얼마 뒤, 그 집은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고 말았다.
3	김 씨는 두 시간 뒤에 중요한 과제를 내야 하는데, 노트북을 어제 도난당해서 급하게 친구의 노트북을 빌려 과제를 하였다. 그런데 노트북에서 작업을 거의 마치고, 첨부파일을 넣기 위해 USB를 사용하려는데, 그 USB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가 노트북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과제 제출 시한에 쫓겨 그냥 USB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친구의 노트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다.	김 씨는 두 시간 뒤에 중요한 과제를 내야 되는데, 노트북을 어제 도난당해서 급하게 친구의 노트북을 빌려 과제를 하였다. 그런데 노트북에서 작업을 거의 마치고, 첨부파일을 넣기 위해 USB를 사용하려는데, 그 USB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가 노트북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USB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번거로워 그냥 USB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친구의 노트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다.

4	<p>김 씨네 가족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 온지 얼마 후, 김 씨의 아들이 학교에 적응이 안 된다며 다시 이사를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시골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김 씨는 이를 들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뒤, 김 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취급을 받아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말았다.</p>	<p>김 씨네 가족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 이사 온지 얼마 후, 김 씨의 아들이 학교에 적응이 안 된다며 다시 이사를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어렵게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김 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 김 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취급을 받아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말았다.</p>
5	<p>김 씨는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이다. 어느 날, 중요한 해외거래 건이 생겼고, 한 사원을 A 국가로 출장을 보냈다. 그 사원이 홍콩을 경유하느라 홍콩 공항에 있을 때쯤, A 국가가 메르스 감염 국가의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김 씨는 이를 알았으나, 거래처에서 계약을 당장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그 사원이 A 국가로 가서 거래를 마치게끔 하였다. 얼마 뒤, 거래 건은 성사되었으나, 그 사원은 메르스에 감염되고 말았다.</p>	<p>김 씨는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이다. 어느 날, 중요한 해외거래 건이 생겼고, 한 사원을 A 국가로 출장을 보냈다. 그 사원이 홍콩을 경유하느라 홍콩 공항에 있을 때쯤, A 국가가 메르스 감염 국가의 주변 국가로,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김 씨는 이를 알았으나, 이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기회를 놓치기 싫었고, 주변 국가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사원이 A 국가로 가서 거래를 마치게끔 하였다. 얼마 뒤, 거래 건은 성사되었으나, 그 사원은 메르스에 감염되고 말았다.</p>

절차

대학생들은 4년제 대학의 교양 수업에서, 대학원생들은 같은 대학의 연구실에서 설문에 참여하였다. 직장인들은 충남 소재에 있는 학교와 시청 등에 직접 찾아가 모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작성한 다음 책임귀인 시나리오의 통제가능성이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무작위로 받아 작성하였다. 설문 작성 시간은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받았다.

결 과

먼저 판단대상의 통제가능성 조건과 완벽주의 성향을 고/저로 나누어 원인책임판단과 해결책임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통제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원인책임판단과 해결책임판단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45) = -2.06, p < .05; t(45) = -2.74, p < .01$). 통제가능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의 고/저에 따른 책임판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t(30) = -.66, p = .52; t(30) = 1.36, p = .18$).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았기 때문에($r = .426$,

표 1. 판단대상의 통제가능성, 판단자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원인책임판단, 해결책임판단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통제가능성	책임판단	완벽주의		t
		고	저	
		M(SD)	M(SD)	
고	원인	35.02(5.24)	32.89(5.99)	-2.06*
	해결	36.04(5.77)	33.22(5.61)	-2.74**
저	원인	28.95(5.65)	28.13(5.46)	-.66
	해결	32.52(5.19)	33.23(4.30)	1.36

* $p < .05$, ** $p < .01$

$p < .01$),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점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점수를 각각 표준화시킨 다음, 두 표준점수들을 더하여 완벽주의지수를 구성하였다. 완벽주의지수의 값은 두 가지 완벽주의가 모두 높은 사람들이 가장 높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높은 사람들은 중간 크기의 값을 가지며, 두 가지 완벽주의 점수가 모두 낮은 사람들은 낮은 값을 가지는 지수다.

완벽주의 지수와 책임판단의 두 조건 간의 관계 경향성을 살피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완벽주의와 해결책임판단의 관계는 통제가능성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제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상관이 정적인 방향을 보여주었고($r = .18, p = .09$), 낮은 때는 부적인 방향을 보였다($r = -.13, p = .28$). 완벽주의와 원인책임판단의 관계는 통제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방향이 정적으로 같았다($r = .09, p = .45; r = .07, p = .49$).

완벽주의지수와 원인책임판단의 관계에서 통제가능성(저=0, 고=1)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원인책임판단에 대하여 완벽주의지수는 주효과를 보이지 않았고($\beta = .08, t = 0.75, p > .05$), 통

제가능성은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냈지만($\beta = .43, t = 6.17, p < .01$),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0, t = -0.05, p > .05$).

완벽주의지수와 해결책임판단의 관계에서 통제가능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결책임판단에 대하여 완벽주의지수가 주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beta = -.11, t = -0.97, p > .05$), 통제가능성은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냈으며($\beta = .17, t = 2.22, p < .05$),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다($\beta = .22, t = 1.99, p < .05$).

해결책임판단에 대한 완벽주의지수와 통제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기지향적,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점수 각각의 평균을 중심으로 두 개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자기_L타인_L),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높고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낮은 집단(자기_H타인_L),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낮고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자기_L타인_H), 마지막으로 자기지향적,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점수가 둘 다 높은 집단(자기_H타인_H), 총 네 집단으로 설정한 후, 각 집단의 해결책임판단 평균을 제시하였다(그림 1). 자기지향적 완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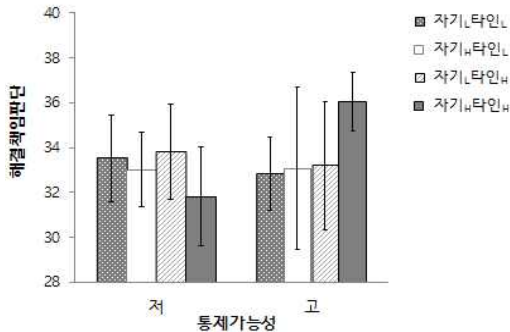


그림 1. 해결책임귀인에 대한 완벽주의와 통제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

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모두 높은 집단은 통제가능성 조건에 따라 해결책임판단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른 세 집단들은 통제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해결책임판단의 평균 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완벽주의 성향, 통제가능성 그리고 책임판단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재판 상황에서 책임 판단을 할 때 완벽주의 성향과 판단자의 통제가능성 정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든 재판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피해, 침해에 대해 피해를 복구하고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형사재판에서는 ‘누구에 의한 것인가?’에 관한 원인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한 해결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원인책임판단과 해결책임판단에 대하여 완벽주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통제가능성은 영향을 미쳤다. 완벽주의와 통제가능성이 상호작용하여 원인책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해결책임 판단에는 영향을 미쳤다. 판단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행위자의 통제가능성이 원인책임을 판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은 반면, 해결책임을 판단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것은 판단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민사재판만의 특징에 따라서 보상 및 배상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원인책임판단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해결책임판단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심현경(2011)의 연구 결과와 상충된다. 심현경(2011)의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 귀인검사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이 직접 겪어있는 문제 상황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책임판단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원인책임귀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책임귀인의 다른 하위요인인 해결책임귀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심현경(2011)의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원인에 대한 책임을 더 지울 수 있음을 말한다.

심현경(2011)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 아닌 타인이 겪은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판단을 다루었다. 원인책임판단은 판단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관계없이 판단대상의 통제가능성이 낮을 때는 그 대상에게 원인책임판단을 덜 하고, 통제가능성이 높을 때는 그 대상에게 원인책임판단을 더 하였다. 이는 Hamilton(1978)이 판단대상(target)의 통제가능성이 책임귀인의 경험적인 결정인이라고 말한

것과 상통한다.

해결책임판단의 경우(그림 1),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모두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킨 타인의 해결책임에 대하여 그 타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두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높은 사람들은 행위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해결책임을 상대적으로 매우 관대하게 판단하는 반면, 행위자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문제를 일으킨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임을 행위자에게 엄격하게 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두 가지 완벽주의 중 하나만 높거나, 둘 다 낮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킨 타인의 해결책임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행동의 방향이 '자기'에게 있는가와 '타인'에게 있는가로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두 가지 완벽주의 중 하나만 높은 사람들은 서로, 그리고 두 가지 다 낮은 사람들과 책임판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상당한 정적인 상관관계($r = .426, p < .01$)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 또한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따라서 높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과 낮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자기_H타인_L)과 낮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과 높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자기_L타인_H)은 완벽주의 특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공히 중간 정도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가

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책임판단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판단에 대한 판단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판단대상의 통제가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타인에게 문제 상황을 일으켰다는 책임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해결할 책임을 부과할 때만 나타났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다른 집단에서는 통제가능성 조건에 따라 일관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지향적,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모두 높은 집단에서는 일관되게 높은 통제가능성 조건에서 낮은 통제가능성 조건보다 해결책임판단을 더 많이 하였다. 이를 보면, 민사재판에서 판단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배상책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의 문제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된 책임판단 척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완벽주의 성향이 분쟁 상황에서의 배상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의 민사재판과 유사한 상황에서 판단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배상 및 보상 판단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에스더 (2008). 초월영성: 종교성 및 종교정향이 문제책임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3), 1389-1408.

- 김상희, 현명호 (2012). 평가 상황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얼굴 표정 해석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27-44.
- 김연수 (1998). 성취관련 스트레스 경험 후 완벽주의와 자존감이 우울발생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모혜연 (2000). 청소년기 스트레스 요인과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2002). 완벽주의와 정서의 매개변인으로서의 귀인양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 양난미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63-388.
- 박현주 (1999).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구분 및 특성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미향, 이윤희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애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1-17.
- 심현경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책임귀인이 우울과 분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유경, 김은정 (2014).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67-1187.
- 유성은, 권정혜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67-84.
- 이미화 (2001).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류진혜 (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정명인, 오수성, 신현균 (2005). 기능적, 역기능적 완벽주의자의 성공 및 실패 사건 경험에 대한 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709-719.
-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93-716.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완벽주의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ickman, P., Rabinowitz, V. C., Karuza, J., Coates, D., Cohn, E., & Kidder, L. (1982). Models of helping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37(4), 368-384.
- Fincham, F., & Jaspars, J. (1979).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the self and other in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9), 1589-1602.
- Flett, G. L., Besser, A., & Hewitt, P. L. (2005).

- Perfectionism, ego defense styles, and depression: A comparison of self reports versus informant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73(5), 1355-1396.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Hamilton, V. L. (1978). Who is responsible?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Social Psychology*, 41(4), 316-328.
- Hamilton, V. L., & Sanders, J. (1981). The effect of roles and deeds on responsibility judgments: The normative structure of wrongdo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3), 237-254.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58-65.
- Hewitt, P. L., Flett, G. L., & Ediger, E. (1996).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Longitudinal assessment of a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2), 276-280.
- Hill, R. W., Zrull, M. C., & Turlington, S. (1997).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1), 81-103.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390.
- Phares, E. J., & Wilson, K. G. (1972). Responsibility attribution: Role of outcome severity, situational ambiguity, and internal extern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40(3), 392-406.
- Piaget, J. (196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Rickard, L. N. (2014). Perception of risk and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34(3), 514-528.
-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Lee-Bagglely, D. L., & Hall, P. A. (2007).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3), 477-490.
- 1 차원고집수 : 2015. 10. 26.
 심사통과접수 : 2015. 11. 10.
 최종원고접수 : 2015. 11. 19.

Responsibility assessment and perfectionism

Jihye Yang

Kwangbai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on the assessment of the target person's responsibility is moderated by the target person's control of the situatio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Hewitt & Flett, 1991) was administered to 123 college(graduate) students and 45 adults. Assessment of responsibility for a problem and that for a solution were each measured with 5 scenarios of accidents in which the target person either had or didn't have some control over the happening of the accident. The results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the participant's perfectionism and the target person's controllability on the assessment of responsibility for a solution. In the assessment of responsibility for a solution, the group that is high on both the self-oriented and other oriented perfectionism assessed mor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to the target person than other groups of different combinations of the self- and the other-oriented perfectionism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for the judges' and jurors' judgments for legal disputes.

Key words : *perfectionism, controllability, responsibility assessment, responsibility attribution, legal dispute*